

**Global Citizenship Higher Education with Honesty,
Capacity and Responsibility
to Transform the World in support of SDGs and UNAI**
- 세상을 변화시킬 정직, 능력, 책임감을 겸비한
세계시민의식고등교육 -

유엔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 회장,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장순홍

2015. 12.

목차

I. 서론: 현황과 미래의 교육 방향	1
II. 산업화 시대와 정보지식화 시대의 교육	3
III.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역할	6
IV. 새로운 “공(工)”자 교육 패러다임	8
1) 새로운 인재 교육 모델의 고안: 기본으로 돌아가자	10
2) 교육의 기본 바탕 : 정직성 교육과 사례	10
3) 선진국의 길- 창의력과 새 아이디어 발상 교육	13
4)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찾아가며 배우는 교육	14
5) 네트워크 시대를 위한 협력 파트너교육	15
V. 고등교육의 혁신적 변화	16
1) 대학 교육의 중요성	16
2) 공부하여 남주자	17
3) 학생중심의 자율교육	19
4) 학생들이 더 창의롭다	20
5) 최초의 무전공, 무학과 입학 제도	22
6) 다 분야 복합교육의 폭넓은 지식	24
7) Why Not Change the World through Education?	26
VI. 세상을 변화(Transform)시킬 세계시민의식교육	
1) 왜 세계시민의식교육인가?	28
2) 유엔 MDGs에서 SDGs로의 전환	29
3) UN Academic Impact(UNAI)의 역할 및 사명	30
4) Sustainable Development ; 경제, 환경, 사회의 통합	32
5) UNAI 10대 원칙과 SDGs의 10개 목표의 상호관계	32
VII. 결론	33

Global Citizenship Higher Education with Honesty, Capacity and Responsibility

to Transform the World in support of SDGs and UNAI

-세상을 변화시킬 정직, 능력, 책임감을 겸비한 세계시민의식고등교육-

김영길(유엔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회장)
장순홍(한동대학교 총장)

I. 서론: 현황과 미래의 교육 방향

인류 역사를 통해서 경제 시스템은, 선사시대의 수렵경제에서 농업경제로, 18세기 산업화 경제에서 20세기말, 오늘날 21세기에는 정보지식주도의 글로벌 경제시대로 진입하였다. 첨단 과학기술과 고속 교통수단 발달로 전 세계가 네트워크되는 지구촌시대가 되었고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이 이룩되었다. 1990년 정보지식화 시대에 진입하면서부터 초고속 인터넷과 통신 위성기술 발달로 여러 분야에서 범세계적인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에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도입되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전통적인 학과나 학문의 벽을 뛰어 넘어 그 틈새를 연결시키는 다른 학과 간의 통합교육과 국제화, 정보지식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 21세기는 교육기관과 기업, 정부,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증진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20세기는 '고립'의 산업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통합'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흐름은 비단 대학 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20세기 대학의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의 지식교육을 더욱 심화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20세기 교육은 인재를 전문화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단순한 지식보다는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교육의 요인이 되었다. 인재의 창의력과 우수성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은 전인교육을 이루는 근간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이동(Power shift)"에서 세계를 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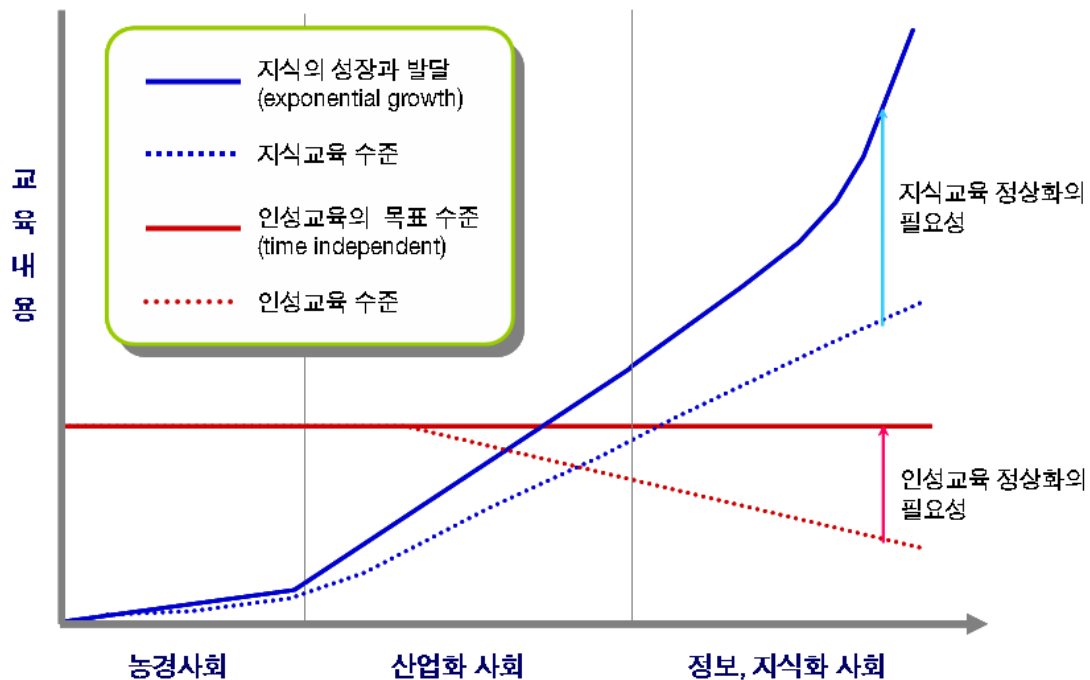
직이는 힘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산업화시대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무력이 국력이었고, 산업화시대에는 경제적인 부가,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 국력이라고 하였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국가나 사회의 부가 자연자원과 제품의 생산능력으로 측정되었지만, 정보지식화 사회에서 한 국가의 부는 국민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국력은 교육에서 나오며, 지식이 힘이고, 곧 정보·지식의 기업화가 부국의 길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그 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나라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 만큼 이 시대 교육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과거와 차별화된 새로운 교육을 통해 국가우위를 지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우리의 교육열이 적지 않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열의 거의 대부분은 대학 입시이고, 대학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좌우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세기 후반 가난한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획일적으로 대량생산 구조를 갖추어 선진국을 추격하던 산업화 시대에는 그 빛을 발해왔다. 그러나 인재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살길은 대학 입시에 집중된 거대한 에너지를, 글로벌 정보지식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학입시에 필요한 수능 점수의 지식이 국가 경쟁력이 아니다.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창의적이고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국제적 수준의 학부교육이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에너지와 잠재력을 대학입시에서, 새로운 교육으로 전환하는 길이 우리나라 선진화의 길이고 첩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중등 교육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경쟁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과학기술 발달은 대기 및 환경 문제를 야기하였고, 21세기 정보지식화 시대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생명과학 시대에 제기되는 문제는 윤리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국인은 세계적으로도 그 두뇌의 우수성과 탁월성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업인들은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수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각 분야에서 그간 대수

롭지 않게 여겼던 도덕성과 윤리 등의 문제로, 그간의 업적과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목도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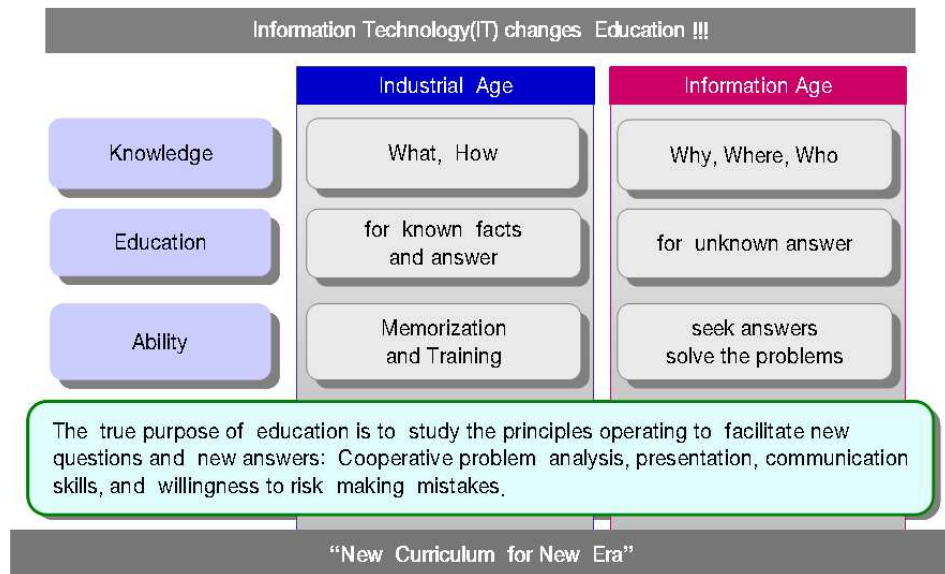


[그림1: 지식 정보화 시대의 인성교육 필요성의 이유]

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인력 양성의 교육 차원을 넘어, 전인적인 도덕, 윤리교육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 공동체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과거 성장과 발전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던 산업화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던 윤리, 가치관, 정직과 도덕성이 국가의 경쟁력이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여기에 초중등교육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II. 산업화 시대와 정보지식화 시대의 교육

산업화 시대에서는 생산기술로 눈에 보이는 제품 “hardware”을 만들었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기계의 힘을 이용하여 대량 생산하여 대량 판매하는 경제활동이 기본이었다. 현대 정보지식사회에서의 기술이란 무엇일까? 바로 지식이다. 정보지식사회의 눈에 보이지 않은 지식상품 “software”을 만드는 신기술이 바로 지식이며, 교육이 그 산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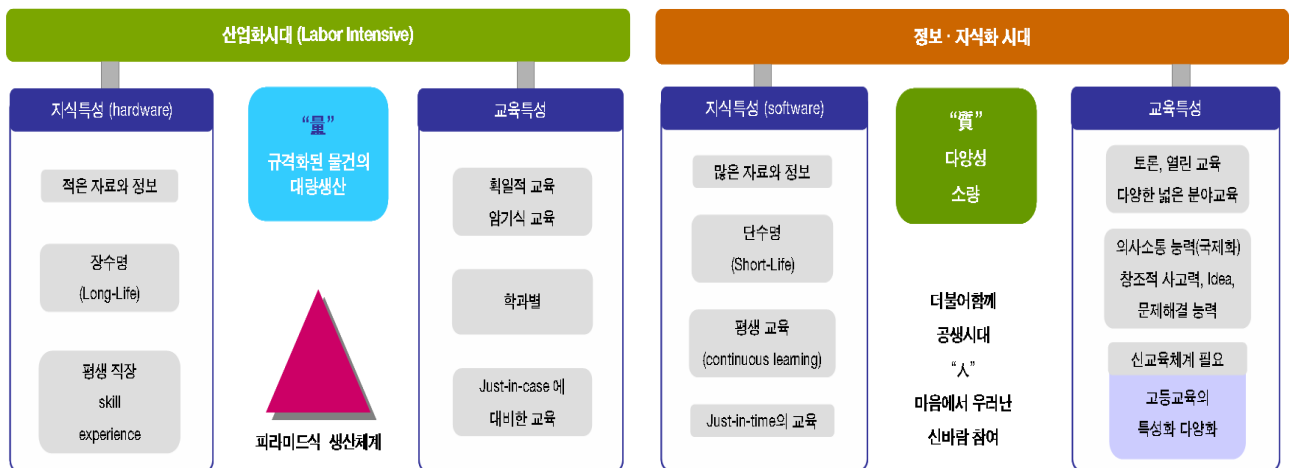
[그림2: 산업화 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교육 변화 비교]

인류의 역사는 교육의 역사라고 할 만큼 교육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교육에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두 요소가 있는데 지식교육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요소이고, 인성교육은 변화하지 않는 요소이다. 지식에는 Know-What, Know-How, Know-Why, Know-Where, Know-Who의 다섯 단계가 있다. Know-What은 알려진 사실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Know-How는 생산기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산업화 시대에서 중요한 지식 교육 내용이다. 그러나 정보지식화 시대의 교육은 Know-What이나 Know-How보다는,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Know-Why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는 Know-Where교육과, 정보를 분석하며 활용하는 사람에 중요성을 둔 Know-Who, 즉 창의성 교육과 Team-Work 및 가치관 등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0C (Industrialization)	21C (Globalization + Informatization)
Educational Activities	Globalization - National - Korean - Computer training	- Global - English + Chinese + ... - Informatizational Technology (IT+S/W+ ..)
	Knowledge - Single Major (single player) - In-Depth Knowledge - Long-Life / Known Fact	- Multiple Major (multi player) - Diverse knowledge at undergraduate level - Short-Life / Unknown Answer
	Character - Individual-based - Competition	- Teamwork, Cooperation - Honesty
Business Activities	Stage Local	- Global (Glocalization) - Globalization + Localization
	Company / Product - Hardware (visible) - Mass production - Low added-values	- Software (invisible) - Small production of diverse items - High added-values

[그림3: 20세기와 21세기의 교육과 기업 환경의 변화 비교]

대량 생산으로 대량 판매하던 20세기 산업화 사회에서는 획일적인 암기식 교육방법도 큰 무리가 없었다. 경제발전의 척도가 제품의 양에 있었으므로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인력의 양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정보지식화 시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과 문제해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도 시대의 요청에 따라 창의성을 개발하고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문화, 특성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산업화시대의 교육특성이 모방이었다면 지식정보화 시대의 교육특성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지식화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은 기계적 암기가 아니라 얻어진 자료를 유용한 정보로 분류하고, 그 정보를 적용 및 활용하여 창의적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 지식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림4: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의 지식과 교육 특성 비교]

정보와 지식으로 Software제품이 창출되는 21세기 정보지식화 시대에서 지식의 양은 급속히 팽창하는데 반해 지식의 수명은 점점 단명해 가고 있다. 지식의 수명이 비교적 장수했던 산업화 시대에서는 학교에서 받은 지식을 사회에서 오랫동안 활용해 왔다. 그러나 정보화 지식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많은 기술들이 대학과 연구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선진국과 경쟁하는 각종 연구 성과를 내기 보다는 창의적이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것이 더욱 더 큰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창의력과 바른 가치관이 대부분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결정지어진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III. 고등교육의 목적과 초중등교육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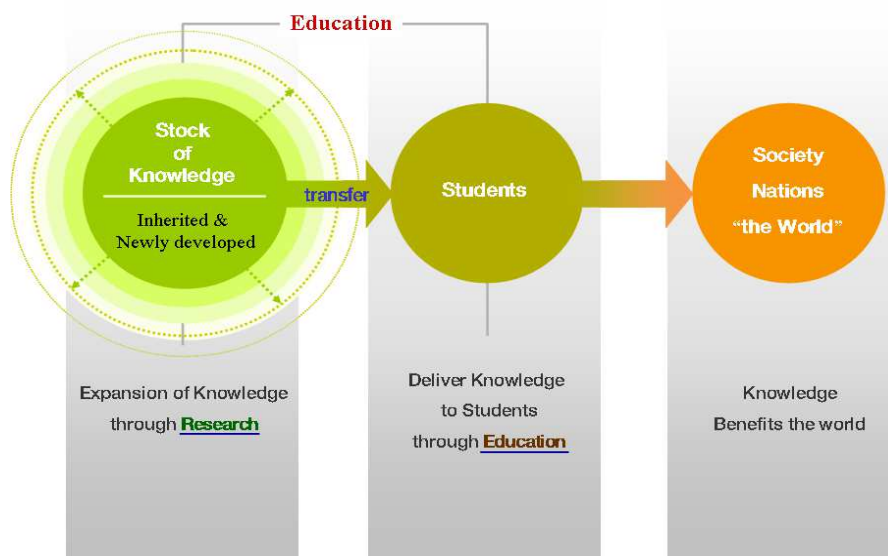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라틴어 "educuo"에서 나왔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외부의 어떤 지식을 심어 준다는 "impress"의미다. 두 번째 의미는 인간내부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표출시켜준다는 "express"라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정리하면 참된 교육이란 영향을 주고 훈육하는 주입식 교육과 잠재적 능력을 끌어내고 개발시키는 교육이 잘 조화되는 것이다. 기억과 암기가 주를 이루는 주입식 교육은 개개인 안에 내제된 열정된 재능을 끌어내주지 못한다. 반대로 학생들의 자유표현만 강조한다면 내용은 없이 무절제한 방종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참된 교육은 외부의 "주입식 교육"과 내부의 잠재력을 끌어내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열린 교육"의 조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질서와 혼란의 조화도 바람직하다. 강력한 통제와 질서의 시스템 하에서 창의성이 길러지기는 힘들다. 사고나 실패를 통해 비롯된 새로운 발명이 많은 것처럼 창의성은 탐험정신과 호기심처럼 창조적 파괴를 통해 나오게 된다. 특히 IT나 생명공학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대학과 기업, 학문과 기술이 상호보완하고 제휴해야 한다.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 있는 대학 못지않게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 또한 필요하다. 대학은 고급인력의 공급처이고, 고급인력의 시장이 기업이기때문에, 고등산업이 없으면 길러진 고등인력은 무용지물이 된다. 대학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학문연구를 이룩하는 곳이다. 대학교육이 부실하면 부실 인력을 기업에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첫째 조건은 대학이 국제 경쟁력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 일이며, 정부나 사회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대학이 국제 경쟁력있는 고급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학 협력과 클러스터를 통해 경쟁력 있는 첨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에서의 연구결과가 기업에 바로 응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연구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통찰력과 지혜를 얻은 인재를 배출한다는 것이 고등교육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보와 지식의 상호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과학은 상업의 해상 거래에서 전수되어 발전했고, 산업혁명 이래 유럽에서 과학기술이 중흥

된 이유는 라틴어라는 공용어를 통해 활발한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은 지식을 붓으로 기록함으로써 제한된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왔다. 그러나 서양은 알파벳 활자를 사용한 인쇄술의 발달로 대량으로 텍스트 문서를 보급함으로써 지식정보 보급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유럽은 동양을 앞서는 과학 업적을 내 놓았고 동양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텍스트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의 대학교육은 교수가 텍스트를 중심으로 교육하되, 실험실이나 교수들이 알고 있는 특정 채널을 통해 얻은 제한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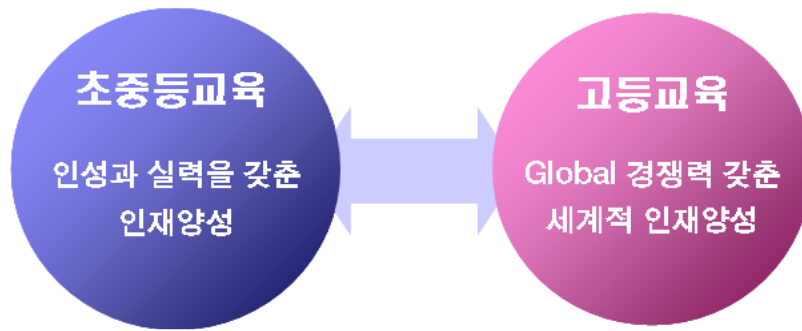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첨단 지식정보가 즉각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됨으로써 교수뿐 아니라 학생들도 언제든지 최첨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학교육의 강의내용은 여전히 텍스트 중심이다. 21세기에도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세계 교육환경은 지식 전달 중심에서 지식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그림5: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도구로서의 교육]

다시 말해서, 지식정보 사회는 전통적인 개념의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지식(subject knowledge)" 보다는 "과정지식(process knowledge)"을 필요로 할 것이다. 쓰고 외우는 지식으로 단순히 정답을 맞추기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지식을 배워야 한다. 지식 사회의 사람들은 학습하는 방법(Learning ability)을 배워야 한다. 학생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동기를 유발하여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목표에 집중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시기가 초중등 교육 단계다. 사실상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학습방법(Learning ability)이 거의 고착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중등교육의 시기에 암기위주의 학습 방법이나 성과 위주의 학습 방법에 익숙한 자원이 고등 교육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창의적인 인재가 되거나, 연구 과정과 가치관에 대해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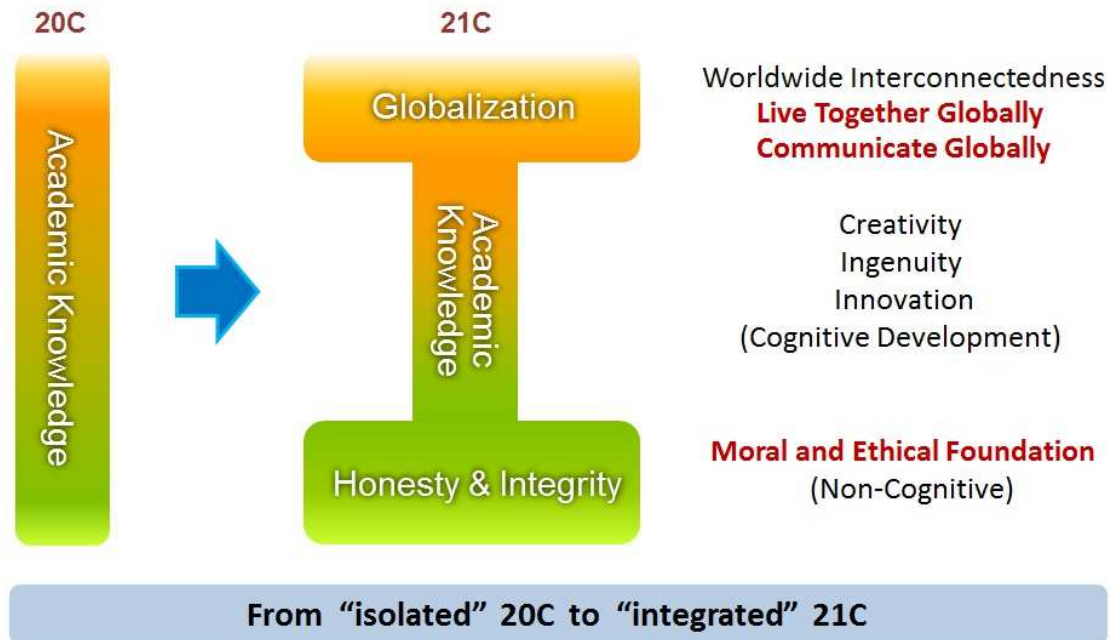
[그림6: 초중등 교육 과 고등 교육의 연계]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서로의 깊은 연관성을 인식하고 상호간에 적합한 인재교육 방식을 찾기 위해 협력해야한다. 초중등교육에서 국가와 민족과 세계인의 자질과 토양이 배양되어야 한다. 21세기에 경쟁력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초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 기관은 세계의 흐름을 주의 깊게 읽어내고 위의 도식과 같이 기업의 인재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논리나 기업 논리에 맞고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성급하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겠으나,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이다.

IV.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한문의 장인 ‘工’ 자는 구조학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모형을 갖추고 있다. 육중한 기차의 무게를 견디어 내는 철로의 구조도 바로 이 ‘工’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간 우리의 교육은 위의 공(工)자형 가운데 기둥 부분을 차지하는 지식 교육의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왔다. 가운데 기둥을 차지하는 ‘T’ 는 이 공학 구조의 무게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간 우리의 교육은 아래의 기초를 지탱하는 기초교육과 정직성 등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홀해 왔다. 한동안은 가

운데 부분의 지식교육만으로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연약한 기초가 그 한계를 드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역시 기본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림7: 21세기 인재 교육의 구조]

1994년은, world-wide-web(www)이 상용화되어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5년 WTO가 발효되어 글로벌 경제 시대가 되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글로벌 경제 시대, 지구촌이 되었다. 글로벌 지식 정보화 시대, 첨단 과학 기술이 지도하는 시대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지식 못지않게 정직성과 성실성 등의 인성교육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바탕이 된다. 흔히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초등학교 어린 시기에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학교육에서도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이 시대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인, 이타적이고 협동적인 대인관계로 ‘더불어’ 일하는 인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한동대는 개교 시부터 정직성 교육으로 무감독 양심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양심과 정직의 전당인 대학에서 무 감독 시험을 치를 수 없다면 한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수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믿어줄 때, 학생들이 교수를 더욱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며, 학생들과 학생들의 관계도 성숙해 질 수 있다.

1) 새로운 인재 교육 모델의 고안 : 기본으로 돌아가자

교육의 근본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양육하는 것이다. 교육은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지식추구의 수단이 아니다. 참 교육은 지식을 전수하는 것 뿐 아니라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영성교육, 지(智), 덕(德), 체(體)의 전체 교육, 특히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전인격 교육과 양육 과정을 포괄한다. 한자의 ‘어질 인(仁)’자는 사람(人)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닌, 두 사람(二) 이상 즉, 이웃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과학기술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산업화를 통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하면서,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성공을 위한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 교육의 근본 목표는 지식 전수(informative)의 차원을 넘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Transformative) 시켜 미래를 준비하며, 전 인격을 양육하는데 있다.

2) 교육의 근본바탕 : 정직성 교육과 사례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사건들은 단순히 성과만을 중시한 그간의 우리 교육 풍토에서 그 원인의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어떤 의과대학에서는 의학 윤리와 생명 윤리에 대한 강의가 의대 신입생 시기에 매우 비중있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의학 지식을 더 가르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기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의료윤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그만큼 그 중요성을 앞선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닐까. 같은 수술 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정직하지 못하면 지식이 사람을 죽일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정직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실이 세상을 움직인다”

* 정직성 교육의 사례 : 양심시험제도

한동대학교에서는 개교할 당시, 시험 감독 부분에 있어서 국내 처음으로 새로

운 시도를 도입했다. 시험을 치를 때 문제지와 답안 작성지만을 제시하고 담당 교수가 시험장을 떠나는 것이다. 조교도 특별한 감독관도 없다. 이른바 ‘양심시험 제도’라는 것이다. 물론 도입 초기에 이런 저런 논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연 시험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자라온 학생들이 이 제도를 지켜낼 수 있을지, 또 부정행위자로 인해 열심히 공부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을 신뢰하기로 했다. 시험장에서 학생들을 감독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분명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바로 그 순간이 오게 될 때에도 우리가 그들을 감독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양심시험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믿음은 확신이 되어 돌아왔다. 자신들을 신뢰해준 교수들의 믿음에 학생들이 감동한 것이다. 정직을 가르쳤다가보다는 학생들 마음속의 정직의 가치가 깨어난 것이었다. 초창기 학생들 스스로도 반신반의했던 이 시스템이 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도 감격적인 일이었다. 한 예로 95년 개교시 첫 신입생의 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 일생 일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말로만 듣던 무감독 양심시험. 너무나도 충격이 있었다. 전산학개론, 시험시작 즈음에 교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시험지를 나눠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셨다. 그리고는 여러분은 두 가지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전산학 개론이고, 다른 하나는 양심시험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다 치른 학생은 교탁에 놓고 나가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학생이 연구실로 시험지를 가져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강의실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모두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험을 치르고 한명씩 교실을 빠져나갔다. 오늘따라 강의실의 너무나도 깨끗한 벽과 책상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너무나도 뿌듯하다. 내 자신이 한동인이란 사실이. 내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게 자랑스롭다.”

첫 졸업생을 내보내던 그 해 겨울, 과연 정직의 가치가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스스로 반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나온 지난 격동의 세월은 성장과 발전이 최고의 가치였고, 때로 정직은 사치스러운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 곳곳에서 졸업생들이 들려온 아름다운 소식은 세상이 얼마나 정직의 가치에 목말라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졸업생 중 한 명은 국내 모 대기업의 입사시험에 합격해 한 달에 걸쳐 신입사원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연수 기간 동안 치러지는 수많은 시험 중,

한번은 도저히 손에도 댈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 어디선가 답안에 도움이 되는 쪽지가 돌았고, 순간 이 학생도 참기 힘든 유혹을 느꼈다고 한다. 이 졸업생은 고민 끝에 이름만을 쓰고 백지를 내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재미있다. 입사 동기 중 이 학생이 가장 좋은 연수기간의 평가 점수를 받게 된 것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감독관이었던 분이 다른 응시자들의 천편일률적인 답안 속에 눈에 띈 백지 답안지 한 장을 보고 이 졸업생을 불러 물었다고 한다. 감독관의 질문에 이 청년은 정말 모르는 문제였기에 백지를 냈다고 했고, 감독관은 사실은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시험 삼아 제출했다고 고백했다. 이 일로 이 청년은 정직이라는 가치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정직함과 고결함을 삶의 기본 자세로 갖추고 생활화하도록 훈련받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정직함을 기르고 교육받은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 뿐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에 적용시키며 특별하고 재미있는 대학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다. 한 예로 도서관과 식당에 비치된 게시판에서 지폐와 함께 붙은 쪽지를 쉽게 볼 수 있다. 단돈 천원이라도 어디에서 주웠으니 잃어버린 학생은 찾아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분실물을 습득했으니 주인은 찾아가라는 글이 올라온다. 실생활 속에 정직함을 교육받은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그 문화를 지켜가고 있다.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문명의 법칙 중에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다. 이는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형태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공중에 퍼진 연기기둥이 주위로 퍼지고, 물에 떨어뜨린 잉크방울이 희석되며, 큰 바위가 풍화를 거쳐 가는 모래로 변해가는 것들이 그 것이다. 어쩌면 세상은 그 속성상 서서히 무질서의 상태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을 정직이라는 등불로 밝히는 청년들이 있는 한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져본다. 정직은 거친 세상을 향해할 때 해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즉 “닻”의 역할을 하고, 항구를 떠나 향해할 때는 “돛”의 역할 즉 에너지를 부여하는 능력이 된다.

3) 선진국의 길- 창의력과 새 아이디어 발상 교육

첫째, 1등 가는 제품을 만들어,

둘째, 2등 가는 가격으로 수출하여,

셋째, 생활은 세계에서 3등가는 수준으로 검소하게 산다.



[그림8 : 선진국의 길]

선진국의 길은 1등가는 제품(Hardware 또는 Software)을 생산하여, 2등가는 가격으로 수출하여, 생활은 세계에서 3등 수준으로 사는 것이다. 1등가는 제품으로 만들려면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하고, 국제적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국제화 교육으로 국제적 대화능력과 신뢰성 및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한다. 3등가는 검소한 생활은 가정, 학교, 사회생활을 통한 인성교육에서 이루어진다.

1등 가는 제품은 모방이나 변형에서 나오지 않고, 창의적 교육에서 탄생한다. 산업화 시대의 바탕이 된 "기능적 기술" 오랜 동안의 현장 경험과 기술에서 나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적 기술"은 창의력 교육에서 나온다. "과학적 기술"은 논리 체계의 기본이 되는 수학 교육과 기초과학의 연구에서 나온다. 수학은 자연법칙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 체계로서, 엄밀히 말해서 자연 과학의 일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은 논리체계의 기본인 간명하고 엄밀한 수학적 기술의 도입과 추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수학과 과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학에는 대수학과 기하학이 있다. 대수는 수의 계산으로 논리체계는 아니다. 창의력은 수학의 기하학 교육에서 나온다. 기하학은 논리 체계의 기본이고, 창의성 교육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는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창조적 마인드를 갖추고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개진을 하며 토론하고 사람끼리 네트워크링할 수 있는 인재가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21세기는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창의력 함양을 위해서 첫째, 모험적인 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실패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배울 수가 없다. 둘째, 다른 사람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른 이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빌려온 것이다. 누구도 모든 것을 혼자만의 실력과 노력으로 깨우칠 수가 없다. 연구실에서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즉 $1+1=2$ 가 아니라 3이 될 수가 있다. 셋째는 창의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주어진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명의 왕자 에디슨은 1880년 사진을 발명하면서 사진은 전혀 상업적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초창기 IBM사장은 컴퓨터를 대량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술의 새로운 발상에는 첫째, 있는 것을 향상(Upgrade)시키는 방법과, 둘째, 있는 기능을 복합시키는 복합(Composite)기술, 그리고 셋째로 존재 기능을 와해하고 아주 새로운 기능으로 대체(Substitution)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신사업 발상을 위해서는 기술의 새로운 발상 이외에 고객의 필요나 취미, 또 사회의 문화적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을 함으로써 새로운 신사업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다.

4)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찾아가며 배우는 교육(Education for the Unknown)

19세기 산업화 시대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추구하고 럭비게임에 비유하기도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 경영학에서 MIS 즉 정보경영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21세기는 볼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blurred)한 시대로 예측이 아주 어려운 시대이다. 산업화 시대의 대학의 교육은 교수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다. 그러나 21세기의 교육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르는 사실(Unknown Facts)’이나, 아직 그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 문제(Unknown Answers)’에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교육은 학생과 교수가 함께 미지의 해답이나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분석, 예측하여 한 가지 해답보다 여러 개의 가능성(probability)이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찾아내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즉 지식정보화 시대에서의 교육은 미지의 것에 해답을 창의적으로 찾아내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과 교수가 함께 미래를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새 시대의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이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축적하여 전달하기보다 학습자에게 배우는 능력(Learning Ability)을 개발해줘야 한다. 정보는 교육을 통해 지식이 될 수 있으며, 그 지식은 아직 모르는 문제의 해답을 풀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 21세기는 많은 지식(Knowledge)을 가진 자보다 지혜(Wisdom)를 가진 자를 더 필요로 하게 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책, 해답을 끌어내는 능력, 의사전달 능력 외에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Risk)에 도전하는 학생의 태도도 중요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식(Just-in-case)을 전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빠르게 소멸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은 지금 당장 필요한 지식(Just-in-time)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1세기의 교육은 교육자도 학생들과 함께 미래를 배워가는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Educators must be students of the future).

5) 네트워크 시대를 위한 공동체 교육

흔히들 21세기를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서 의미하는 네트워크는 정보통신(IT) 분야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네트워크가 있다.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네트워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에는 지식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식의 생산자는 곧 인재다. 또한 21세기의 중요한 화두의 하나는 각 분야와 부문간의 복합적인 결합에 의한 정보와 가치의 재생산이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과연 초중등교육에서의 공동체 교육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정보화 시대에서는 한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 기업의 조직문화를 대표하는 ‘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인재간의 교류와 화합의 기회와 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고 있다. 최근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의 구조는 핵가족화 되었고 대부분 외동으로 자란다. 자연히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모든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랐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하는 바를 이루며 성장했다. 이러한 시대적인 특수성은 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연스레 공동체 문화의 약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은 과거 산업화시대에 우리가 배워왔던 '집체교육'이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더불어 경쟁하고 더불어 지식을 교류하는 수준의 공동체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개인주의 성향의 만연에는 우리의 입시위주 교육 환경이 영향을 준 바가 크다고 하겠다. 상대평가를 통해 남을 경쟁상대로만 생각하게 한 우리 사회에 일부의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을 바꾸어 주어야한다. 가장 기본에서부터 변화를 이루고 훈련시키는 데는 초중등교육만큼 그 영향력이 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다양한 환경과 재능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V. 초중등과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와 방향

초중등교육을 떼어놓고 대학 교육을 논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의 방향에 따라 국내 초중고등 교육의 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동대학교를 예로 들어 초중등 교육이 활성화되고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구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고등 교육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하는 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대학교육의 중요성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대학의 중요 기능은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이다. 교육이 연구보다 더 우선이다. 물론 이 명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구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연구가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최우선적인 것은 아니다. 연구는 교육을 잘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만 하는 대학은 연구소이지 대학이 아니다. 1960년 이후 미국의 많은 이공계대학에서는 우주 항공 산업과 국방연구로 연구에 중점을 둔 결과, 학부생들의 강의와 교육은 소홀히 하여 대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 결국 후유증으로 대학에서 수학하는 자원들의 적지 않은 수가 획일적인 수준의 지식 전달자와 수여자로서의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1994년 미국 백악관 과학정책 보고서에서 학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cience. Vol.266 . 4 Nov.p.741-3).

미국 백악관 과학정책보고서(Science in the National Interest, 1994)에 의하면, 21세기에도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학교육에 중점을 두어, 과학기술인재의 인력집단(Pool)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보고서에서 특히 대학은 교육연구봉사 세 가지 주요기능 중,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교육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Teaching and learning must be reinvigorated as the primary mission of academic institutions”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습경험을 확대시키며, 교수는 가르치는 임무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 산업연구협회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도 대학의 우선 순위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The top priority of universities should be to educate their students”.

미국에는 대학원 연구 중심의 대학교가 대다수이지만, 교육중심의 탁월한 대학도 여럿이 있다. 대학이 교육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학사 출신의 학생이 기업과 실사회에 진출하여 실사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학부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은 학부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중심의 대학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대학원 연구 분야 과정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대학 재정 지원이나 교수의 업적 평가 등을 논문 숫자에 절대 기준을 두기에, 학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고, 부실한 교육을 하게 된다. 교육 중심 대학의 양성과 재정 지원이 대학원 연구지원에 못하지 않게 중요하다. 오늘날 글로벌 정보지식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중심 대학의 육성과 지원이 바로 청년 실업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며 우수한 대학원 인력 양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수한 학생 선발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수준의 대학 학부 교육이다.

2) 공부하여 남주자

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강의실에서 배운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는 초중등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한동대에서의 인성 교육 훈련은 때때로 다가오는 삶의 질고를 견디어 낼 수 있는 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넘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 한동대는 개교 때부터 “공부하여 남주자” 슬로건 외쳐오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자기중심의 이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중력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고 섬기는 “은혜의 법칙”을 따라 인생을 살도록 교육하고 있다. 정직과 성실 인성교육 및 신앙 영성훈련을 통

해 삶의 목적과 인생의 참된 의미를 교육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심어 주고 학생들의 가슴에 불타는 열정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한동에서의 인재교육시스템은 마치 도자기를 구워내는 과정과 같아서 흙을 가져다 채로 치고, 물로 걸러내 고운 흙을 얻고 나면, 진흙 덩어리를 수없이 치대어, 그 체질을 변화시키고, 흙 사이의 공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거친다. 이 체질 개선작업이 바로 인성 교육 과정이다. 전문성 교육과 국제화 글로벌 교육은 이렇게 준비된 양질의 흙으로 그릇을 빚는 과정인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각자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무엇인가 기능을 할 수 있는 모양과 형태를 갖추어 가게 된다. 만일 기초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그릇의 모양을 예쁘게 디자인한다고 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약한 그릇밖에 탄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제 기능을 다하려면, 기초 재료의 준비와 그릇을 빚는 과정을 거쳐 1200도가 넘는 불가마를 견뎌내고 구워져서, 체질이 녹아내린 뒤 세라믹으로 변해야 한다. 이 변화는 한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교육은 사람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교육은 변화(Transformation)이다.

한동대는 최근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해외 교류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동대가 시도한 지역탐구(Field Research)라 불리는 프로그램은 그 개념과 접근방법에서 완전히 다르다. 단순히 해외 문화를 접하기 위한 탐방 프로그램이 아니다. 매년 방학마다 전교생의 약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Field Research를 떠날 만큼 학생들의 참여도 또한 매우 높다. 학생들은 자신의 지도교수와 함께 방학에 떠날 지역탐방 프로젝트를 위해 한 학기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준비한다. 공간시스템공학부 소속의 한 교수와 그 팀 학생들은 매년 방학을 이용해 ‘앙코르와트’의 도시인 캄보디아의 앙콜시엠립을 방문해 현지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워낙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이다 보니 그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의 자본과 인력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현지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갈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의 관리 방법과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도시계획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그 운용방법 등 그들이 궁금한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

이 없었다고 한다. 한동대 학생들은 시애틀 주정부의 공무원들을 위한 전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CAD와 같은 프로그램 교육을 돕기 위해 재학생 중 몇 명은 한 학기 휴학을 하고 현지에 남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학교가 제안한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바로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만들어 낸 것들이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한다. 단순히 개인의 번영과 부를 위한 것만이 아닌 자신의 역량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한동대의 학생들은 세계를 품어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한국 6·25 전쟁 시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하여 수많은 도움을 받았던 우리 한국이 그 빛을 갚을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였다.

3) 학생 중심의 자율교육

교육의 일차 수요자는 학생이다. 각 사람마다 적성과 소질, 취미가 다르다. 대학을 지원할 때 전공학과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과의 내용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수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 학생의 적성을 발견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동대는 1995년 개교 때부터 무전공무학과를 도입하여 2학년 때 자기 적성에 맞는 학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중고등 교과 과정의 이과와 문과로의 구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한하다 보니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은 고려되지 않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이러한 학생 선발구조는 초중고등 교육의 각종 교과 과정을 왜곡시키는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초중고등교육 부문의 창의성 제고와 새로운 시도를 주문하기에 앞서 유관 교육기관의 하나인 대학이 학생선발 단계부터 스스로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고등교육기관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초중고등 교육기관에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과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이후 이렇게 교육된 우수한 인재들을 대학기관에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유기적 구조가 생겨나야 한다.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교육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어느 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진로에 부응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스페인 철학자 Ortega는 오늘날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는 "근래의 교육은 학문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결과적으로는 교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였으면서, 실제로 몇 명을 교수가 되도록 하였는가? 100명의 학생 중 많아야 1명을 교수로 추천하였다면, 나머지 99명에게는 필요 없는 교육을 시킨 셈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대학은 학생을 기만하고 있다고 혹평을 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문중심의 이론과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기업의 수요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과 기업간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그 원인은 산업화 시대에 교육을 받은 학문 중심 교수가, 지식정보화시대 글로벌 무대에 활약할 미래의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있다. 기업은 국제무대에 경쟁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은 그러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도 실 사회에 요구되는 실무형 문제 해결형 교육보다는, 박사과정 진학을 위한 전 단계의 과정으로 대부분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지식화 시대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학사학위 과정 이상의 실무형 인재의 수요가 크게 증대 되고 있다.

4) 학생들에게 더 큰 창의력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졸자의 높은 실업률이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될 만큼 장기실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일선 기업가들의 입장에서는 정작 회사에서는 데려달 쓸 마땅한 인재가 없다는 푸념이 들리곤 한다. 도대체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나라가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교육열과 대학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대학들이 70, 80년대 산업성장기에 필요한 인재를 대량으로 배출해 국가적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당시의 교육모델은 학생의 적성이나 관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방면에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해가는 21세기가 요구되는 인재상 또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기관들이 이 변화의 속도에 맞춰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고 학생의 선발 방식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각종 사교육비로 가계가 휘청거리는 것은 물론 끝없이 소모되는 경쟁으로 학생이나 부모 모두 수험기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교육 환경에 회의를 느껴 어린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살아가는 현상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문제에도 교육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역대 모든 정부에서 골머리를 앓았을 만큼 부동산과 교육정책을 세우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한번은 출장을 위해 수능 시험일에 공항을 찾았는데 듣기평가 시간에 맞춰 국내선 비행기의 이착륙이 한 10여 분간 지연된 적이 있었다. 옆자리에 동승했던 외국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통에 설명을 하느라 애를 먹었던 일이 기억난다. 어쩌면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문제는 온 가족의 모든 자원을 쏟는 교육이 대부분 대학입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피나는 경쟁을 거쳐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 학생이나 부모나 언제 그랬냐는 듯 공부에서 손을 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의 능력을 어느 대학 출신인가로 평가하려고 한다. 물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도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학입학 이후에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추어도 일류대학 출신이 아니면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강하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12년을 오로지 대학입시에 쏟는 현상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은 가장 중요하고 공정한 시험은 바로 대학 입시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우리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대학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 가는 독립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정직하고 건전한 민주 시민이 되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지식과 인성에 대한 균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생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시기에 오로지 입시를 위한 경쟁으로 몰아가는 오늘의 교육 현실에 학생들은 지쳐가고 있다. 학벌 타파나 능력 위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학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애착과 믿음이 때로는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러한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시험 공포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학입시 단 하루를 위해 1년의 스케줄과 건강까지 맞춰야 한다. 입시날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일생을 망치는 일일지도 모른다. 시험에 낙방한 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시험을 보기 전에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집을 나가고

돌발행동을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연 답은 없는 것일까?
이 경직된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피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

5) 무전공·무학과 입학

한동대학교는 95년 개교 때부터 무전공무학과 입학제도가 시작되었다. 사실 고교 3학년생에게 자신의 적성과 관심분야에 대해 결정을 하고 전공을 택하도록 하는 것은 좀 가혹한 일인 것 같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교육환경이 초중고교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적성을 잘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무엇인가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처음 무전공무학과 입학제도를 도입했을 때 많은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었다. 기존 대학들의 고정관념과 틀을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도 무리는 아니었다. 특정 전공으로 학생들이 몰려들어 전공 간, 불균형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기존 대학들이 무전공 무학과 입학 및 학부제 도입을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한동대학교에는 10여 개 학부전공과 약 20여 개의 세부전공 트랙이 있다. 한동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고교시절의 문·이과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1, 2학년 기간 동안 다양한 과목과 전공들을 경험한 뒤 전공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전공을 최종적으로 택하기까지는 많은 교수님과 선배들의 도움이 뒷받침된다. 앞서 언급된 한동대학교만의 독특한 ‘팀제도’를 통해 선배들의 경험을 듣고 기숙사 생활을 통해 다른 전공자와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팀 교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담을 받는 등 많은 안전장치들이 학생들의 선택을 돕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기도 한다. 고교시절 수학에 자신이 없어 문과를 택했던 강군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수업을 듣던 중 흥미를 느껴 현재 LG전자 D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95학번 안군과 96학번 최양은 명문외고 출신으로 소위 문과 출신자들이었지만 이들 역시 무전공, 무학과로 입학한 이후 공학 분야에서의 적성을 발견하고 공학계열로 학부전공을 마쳤다. 안군은 현재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며, 최양은 최근 KAIST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기존의 틀에 대한 맹신을 과감하게 부수는 일은 어쩌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던 한동대학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한동대학교는 모든 학과가 같은 커트라인을 갖는다. 무전공 무학과 입학은 점수에 맞춰 전공을 결정해야 했던 기존의 제한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부여했다. 어느 학과가 입시점수가 몇 점 높다는 식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한 뒤 자신의 적성을 점검하고 발견할 충분한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약 20 년간의 시행 결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10여개 학부로 학생들이 고르게 안배되어 왔다. 따라서 한동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그 순간 새로운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쏟았던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개인의 열정과 젊음을 요구하는 진짜 대학생활이 바로 그것이다. 무슨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지, 그것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전공을 모색하는 진지함이 1학년 학생들에게서부터 녹아난다.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모인 학과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공 선택의 자유로움과 다양성은 한동대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다.

눈앞의 점수나 제도를 근거로 학생들에게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크고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한동대의 학부 중에는 산업디자인공학부가 있다. 일반적으로 타 대학들의 경우는 산업디자인 전공희망자들은 중고교 시절부터 미술 실기를 준비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그러나 한동대학교에서는 산업디자인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타 전공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무전공·무학과로 입학한 뒤 자신의 희망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물론 중고 시절에 미술 실기를 해본 학생들은 거의 없다. 처음 산업디자인 전공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의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은 과연 이런 시도가 성공하겠느냐는 편견을 주기도 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술 전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생이나 스케치조차 처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도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을 무렵 점차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많은 학생들이 전국 공모전을 휩쓸기 시작한 것이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대학의 디자인 전공학생들은 기술적으로 타 대학의 전공자들에 비해 출발선에서부터 현격하게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 학부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기술로 승부하지 말고 콘텐츠와 창의력으로 승부하도록 가르쳐왔다. 흔히 작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전문가의 눈으

로 보면 ‘아 이 학생은 어느 학교 출신이 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해당 학교에서 중시하는 기술적 특징들이 녹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우리 학생들의 작품에서는 정해진 패턴이나 특징을 발견할 수 없고, 상상하지 못했던 번뜩이는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했다. 디자인 전문가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 고교시절 미술을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한다. 제주도 출신의 96학번 김군은 중고 시절 미술 실기라고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이과출신의 공대 지망생이었지만, 1학년 때 접한 디자인관련 수업에 매료되어 전공을 산업디자인으로 결정했다. 룸메이트들이 보기에 걱정이 될 정도의 스케치 실력 때문에 한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야 야했다. 그러나 지금은 GM 대우 자동차 디자인 연구소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98학번 졸업생의 한명인 신군은 재학시절부터 부족한 미술적인 기술부분 보다는 자신의 창의력을 극대화하면서 한 걸음씩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키워왔다. 신군은 3년 연속 국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재학시절 대학생으로는 드물게 대한민국 초대작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귀한 재능들이 보물처럼 숨어 있었다니! 만일 우리가 입학성적과 고교시절 문, 이과 이수 경험만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전공을 정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싫어지는 일이다.

대학은 학생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대학이 가진 교육 철학과 노하우를 전수하기에 앞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 안에 숨겨진 소질과 잠자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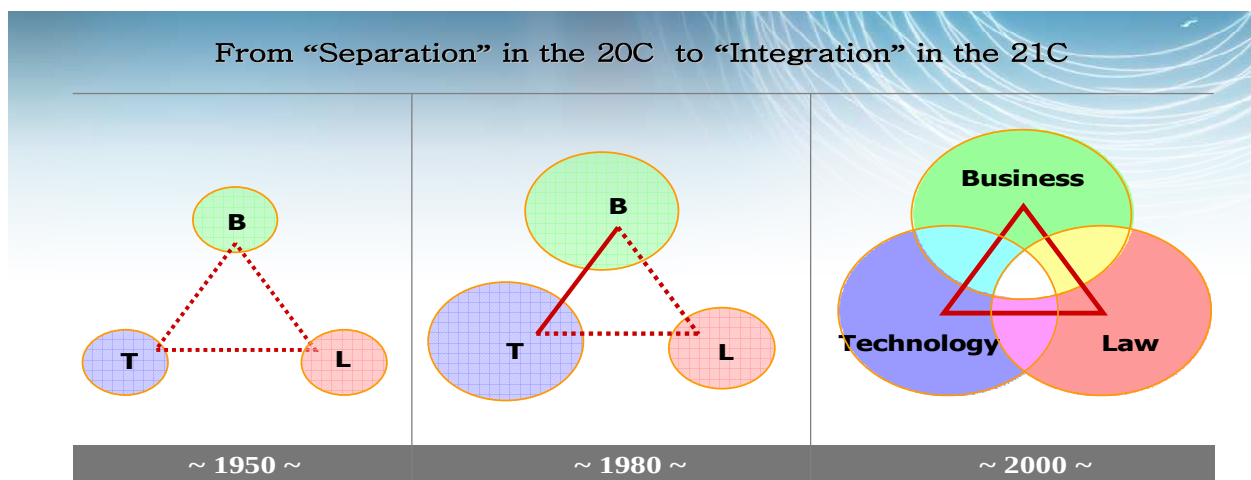
6) 다 분야 복합교육의 폭넓은 지식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 교육 부문에는 대부분 이과와 문과의 구분을 두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양 분야에 있어 학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고 특별히 이, 공과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문과의 학생들에 비해 수학부문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는 참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소질이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시기의 학생들이 그런 확신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그들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시도

가 필요하다. 문과 적 소양과 이과 적 소양의 다양한 폭을 경험하도록 복합적인 교과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시도가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십여 개가 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에 이르는 다양한 문, 이과 과목들을 개별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과목을 경험하게 하자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사실 이런 문제는 대학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학에서는 학과를 학문적인 분류로 나누지만, 실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학과 별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한 예로서, 철강회사의 사고는 금속공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 전기, 제어, 경영 등의 여러 분야가 연관되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한 동대는 1995년 개교 시부터 연관 두 학과를 함께하는 복수 전공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학과 간의 틈새를 연결하고 중복되는 영역의 성격이 약간 비슷한 학부 간 교육이나 혹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생명과학과 경영학과 등의 조합도 할수 있게 학생이 선택 할수 있게 하고 있다.

21세기 과학기술 주도의 글로벌 시대에 핵심이 되는 세 분야는 Technology, 국제 경영 와 국제법 등을 예로 들어 보면, 이 세 분야는 산업화 시대에는 분리되어 아주 서로 다른 학과로 여겨지었다. 그러나 21세 기 의 글로벌 시대, 융합시대에 진입하면서 각 분야의 영역이 확장되어 21세기에는 중첩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국제법 및 지적 소유권 등 법 분야도 확대되어 여러 분야가 서로 중첩되게 되었다.



[그림9 과학, 기술, 법 분야 간의 시간적 변화]

20세기 산업화 시대에서는 암기와 훈련의 주입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보지식화 시대에서는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 사고를 배양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Team work 교육이 중요하게 되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반복 훈련이나 지식의 기계적 암기를 통해서 배울 수 없다. 지식정보 자체의 획득보다는 지식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며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최우수 제품을 생산하고, 국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또한 혁신적으로 변화하여 세계 환경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팀 과제,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 한동대 학생들은 각종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한 예로 LG에서 주최하는 ‘LG글로벌챌린저’는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공모전 중 하나로, 자율적으로 연구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해외로 연구탐방을 떠나는 경시대회다. 해외 연구 활동을 위한 항공 및 숙박의 모든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연평균 21: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인기 공모전으로 손꼽힌다. 한동대학교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5년간 10번의 수상기록을 가지고 있다. 3번의 대상을 받았고, 2007년부터는 한 해도 빠짐없이 7년 연속으로 수상하고 있다. 국내 유수의 대학교 가운데서도 이러한 수상기록은 매우 이례적이다. 동일한 학과의 학생들로 팀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 비해, 한동대학교는 다양전공을 가진 친구들이 어우러져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이는 학과간의 경계를 없애고 복수전공제 및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팀 위주의 교육을 신입생 때부터 훈련받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토론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7) Why Not Change the World ?

한동대학교는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모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기를 부여한다. 하지만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

어 애당초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필드와 상황에 따라 적용방법과 대안이 다르기 때문에 해답은 학생 스스로가 발견해 나가야만 한다. 한동대는 학생들이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제한 없는 자율 전공, 서로 협력하는 팀제도, 신앙 교육 등으로 전인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입학한 이후에는 스스로 적성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공부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때로는 학생들이 방황을 하기도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향에서 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학생들을 만나기도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전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하고 있다. 물론 대학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세계는 점점 작아지는 지구촌 시대로, 점점 가속화되어 가는 시대에 이르렀다. 21세기의 미래사회는 공간적으로 넓은 국제적 시야를 가진,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미래 전망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한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인 감각과 의식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자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시대에 참여하기도 힘들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가 글로벌 시대의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적 대화능력과 폭넓은 지식, 그리고 인성을 겸비한 고등교육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오늘날 통신, 교통, 기술의 발달로 지구는 시간적으로 동시적이 되며 공간적으로는 좁아진 지구촌 글로벌시대에 돌입하였다. 제조 및 정보기술, 시스템 경영분야의 기술혁신은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 세계시장을 창출하는 세계경제를 이룩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일상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국제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조업자나 서비스업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국가나 지역 개념으로 기업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로 전략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활동 영역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전 세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제품을 생산 조립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계화와 더불어 교역량이 크게 증대되어 상품과 서비스 교환 못지않게 자금 및 정보의 교환,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환도 매우 신속해지고 있다. 국제화는 21세기 국가, 기업, 직장, 생활, 사회 및 교육 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실제적인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는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 세계의 한복판에 살아가게 되었다. 국가의 번영과 생존이 국제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VI. 세상을 변화(Transform)시킬 세계시민의식교육

1) 왜 세계시민의식(Citizenship)교육인가?

세계시민(Global Citizens)이란 누구를 뜻하는가? 세계시민이란 법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생겨나고 있는 지구촌의 한 구성원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한 국가의 법적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시민으로 지구촌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지구촌 시민으로 유일한 지구상에서 자연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점점 파괴되어 가는 생태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운명체의 한 구성원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시민을 “지구촌의 한층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인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할 책임을 지고 있다.

세계시민의식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과 통상 말하는 세계 시민교육(Global Citizens Education)은 그 의미와 내용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 세계시민의식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언어 등의 지식적 차원의 인지적(Cognitive) 교육을 넘어, 비인지적(Non-Cognitive) 요소들 즉 정직과 성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Coexistence), 윤리 도덕의 가치관, 정체성(Identity), 사회정의, 다양성, 사회적 불평등, 남녀 성평등과 지속적인 환경 보존(Sustainable Environmental Protection)과 책임 등의 포괄적이고 더 넓은 부분을 아우르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새로운 교육 콘텐츠 도입을 통하여 혁신적인 교육법을 채택하고 세계를 무대로 삼아 학생들이 그 배운 바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 사회에서는 사람간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 포괄적인 조화가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창의적 인지(cognitive) 교육 뿐 아니라, 가치·태도·정직과 성실 등의 비인지적(non-cognitive) 교육 또한 중요하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색해지면서 인류는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개인과 자국 중심의 물질적 풍요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테러와 전쟁, 절망과 파괴의 소식들은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이슈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국가나 개인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협

력을 통한 글로벌한 해결책만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전인교육을 통해 교육의 참 의미를 되찾고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세계시민교육의 정립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세계시민의식교육은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받아들임으로써 상호 간의 경계를 허물고, 그 지평을 넓혀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교육체계가 자국의 충성된 국민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국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국의 시각을 넘어서 다른 국가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혼란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유엔 MDGs에서 SDGs로의 전환

2015년 9월 25-26일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역사적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의결하고 2030년까지 달성할 계획을 구체화 하였다. 2000년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근본적인 목표로 삼았던 새천년개발계획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이 종료되고, 이제는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의 공동노력을 촉구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존 8개였던 MDGs 8개의 목표가 SDGs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수적인 증가가 아닌, Development가 “개발”과 “발전”이라는 중의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Development가 개도국 (G77) 과 선진국(G20)이 공동으로 이루어 가기 위한 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MDGs가 빈곤퇴치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였다면, SDGs는 인간을 중심으로 삼고(people-centered), 지구 환경을 배려하며(planet-sensitive) 더불어 살기 위한 지속가능한 방법 도출, 전 지구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포용등을 모두 포괄하는 유기적 연결을 강조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SDGs 지속가능발전의 17개 목표(Goals)는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나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 또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뛰어넘어 범

지구적 연합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21세기는 상호연결, 상호의존, 역동성의 세계이며 빈곤, 테러, 전쟁, 혁명, 절망, 파괴,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같은 환경문제 또한 세계가 함께 당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킨 주범도 사람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 헌장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고 쓰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교육이며, 그렇기에 교육은 인간 개발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UN Academic Impact (UNAI)의 역할 및 사명

이에, 2010년 11월 18일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아카데미임팩트(UNAI, www.academicimpact.org)를 창설하고 전 세계 교육기관이 유엔의 정책과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2015년 현재 전세계 1,000여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면 한국내는 67개교). 유엔아카데미임팩트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식의 사회적 책임(Intellectual & Social Responsibility)을 성취하는 목표를 세웠다. 2015년 11월 15일 유엔 총회에서 UNAI를 통해서 지식격차를 줄이며 세계시민교육을 더욱 조장하여 유엔의 핵심 원칙과 활동을 이해하고 가능케하는데 UNAI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의결하였다(유엔총회 결의: A/c.2/70/ L.24).

유엔아카데미임팩트는 지식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유엔의 3대 목표인 평화, 인권, 개발의 달성을 위해 10대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주관하는 10개의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문적, 도덕적, 영적인 발달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세계시민의식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도 유엔아카데미임팩트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저는 세계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학계의 지원을 도모하고자 유엔아카데미임팩트를 창설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도움으로 세계 시민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UNAI에 동참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임명된 청년특사로 긴밀히 협력하기 바랍니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015년 제2차 유엔아카데미임팩트 서울 포럼)

“유네스코는 유엔아카데미임팩트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를 비롯한 이니셔티브들이 모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글로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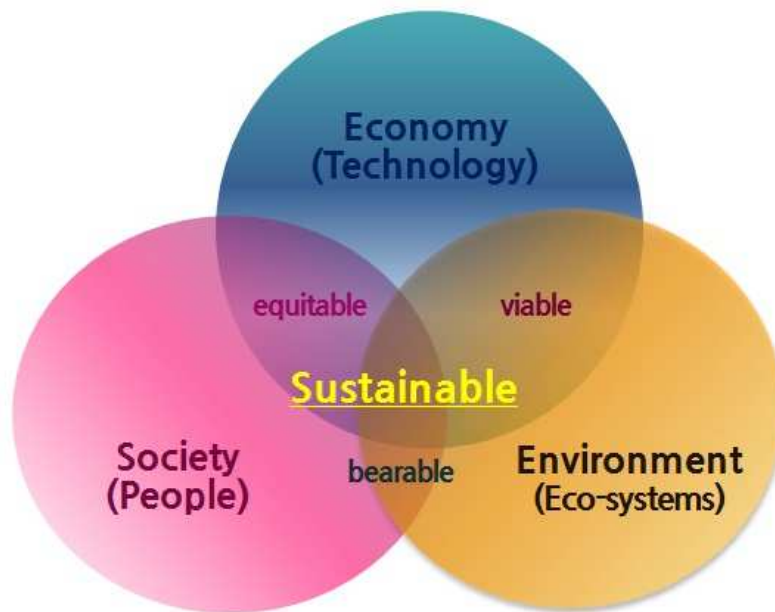
세계에서 고등교육은 새로운 형태의 세계적 결속과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을 위한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2015년 제2차 유엔아카데미임팩트 서울 포럼)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관용, 상호 존중 및 이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시민의식교육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관용, 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며 세계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하는 귀중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유엔아카데미임팩트는 창의적 시민교육, 포괄적인 기업가정신, 기술기반지식,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원칙을 세워 유엔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도 “유엔아카데미임팩트 우호국(Friends of UNAI)”을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유엔아카데미임팩트의 활동과 다음세대를 세계시민으로 양육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17목표(SDGs) 중 제 4 Goal목표에서 세계시민의식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는 세계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으며,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세계시민교육이 폭력적 극단주의에 유용한 대응수단이라고 했다. 세계시민의식교육이야말로 각 사람에게 평화의 마음을 심어 줄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교육은 지식교육의 차원을 뛰어 넘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역할과 목적이 지식을 가르치고 전수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을 갖추게 하는 세계시민교육으로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유엔아카데미임팩트는 2015년에서 2030년까지, 15년간 새롭게 시작되는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적 고등교육기관, 장학기관,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특히 SDGs를 해결하는데 궁극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발전해결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www.unsdsn.org)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4) Sustainable Development : 경제, 환경, 사회의 유기적 통합



[그림1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 환경, 사회의 유기적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 정책이나 생태환경 보존, 혹은 복지 증진의 경제 정책만으로 성취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통합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경제, 환경, 사회의 모든 부분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한 분야의 정책이나 교육 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 하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성장만을 강조한다면 지구생태계의 훼손 등 빈부 격차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범국가적 협력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며, 포괄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과 사회문제를 함께 포함 하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5) UNAI 10대 원칙과 SDGs의 10개 목표의 상호관계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SDGs와 유엔아카데미임팩트가 서로 상호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SDGs의 17가지 목표와 유엔아카데미임팩트의 10대 원칙은 크게 창의적인 글로벌 세계시민교육, 포괄적인 창업가 정신, ICT를 통한 지식의 확장, 지속가능한 환경의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는 SDGs와 유엔아카데미임팩트의 10대 원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고 교육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센터가 필요하다.

[그림11: UNAI 10대 원칙과 SDGs의 10개 목표의 상호관계]



VI. 결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걸맞은 지식을 전수하는 인지적(Cognitive) 교육과 새마을운동 교육, 그리고 기간산업 구축을 위한 대기업 지원과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창의적 소프트 융합 기술이 주도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시대는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생산 기술을 보유한 인재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인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글로벌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수하는 창의적 인지(cognitive) 교육과 함께 가치관, 윤리, 도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인지적(non-cognitive)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새로운 혁신적 차원의 세계시민의식 교육(Global Citizenship Higher Education)을 초중등부터 고등교육 기관까지 실행하여 창의적 인재, 말하고, 쓰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글로벌 인재, 이웃과 세계와

함께 더불어 살며 협력하는 ‘글로컬(Glocal)’한 신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배출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행복한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구촌 공동체로 대변되는 21세기에는 글로벌하게 생각하면서 지역과 세계를 함께 변화시킬 글로컬(Glocal)한 능력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글로컬한 인재로 우리의 미래세대를 길러내려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적·문화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야 한다. 글로컬한 인재의 양성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며, ‘창의적 지식 교육과 글로벌 교육, 정직과 성실을 기본으로 삼는 인성교육’이라는 3가지 요소를 융합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새로운 콘텐츠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수법 뿐 아니라, 다양하며 새롭고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인 교수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등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학습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교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의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은 줄어들었고,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미래의 학습자”로 변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교수는 전통적인 지식전달자의 역할 외에도 학생들의 멘토 및 삶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혁신적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는 정의롭고(Just), 평화로우며(Peaceful),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과(Inclusive), 지속가능한 환경(Sustainable World)을 만들어 가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식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중·고등 교육과 대학의 교육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양 부문의 교육자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 우리의 학생들을 세계 속의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우리는 상호 연결되고 복잡하며 역동적이고 국제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21세기 대학에게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요구한다. 오늘날의 다양한 국제문제를 처리하려면, 대학과 학생들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형적이고 혁신적인 변화

를 이행해야 한다. 대학은 학생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미래의 지도자를 준비시킬 역할과 임무를 지녔다. 대학교수가 그 역할을 다하려면 최신 지식의 첨단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실험하고 습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교육자에게는 다른 어느 직업보다도 이런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자는 끊임없이 과거를 고찰하고, 현재를 평가하며, 미래를 예견해야 한다. 우리 교육자들이 진정으로 임무를 완수하려면 미래 지도자를 육성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